

색상으로 느끼는 감정(1)

가을의 산에는 초목이 노랗고 빨강색으로 다채롭고 들에는 잘 익은 과일이나 곡식의 색깔이 어우러져 아름다움을 뽐낸다. 우리 나라의 가을은 추수의 계절이고 추석이라던가, 결혼, 행사가 많은 계절로 늘 풍요로운 기분이다. 가을의 색상은 갈색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갈색에는 연한 베이지색으로부터 오는 것으로 마로니에 열매인 마룬(갈색), 밤껍질(갈색), 이끼의 색상인 베르무스(모스크린), 아프리코(살구의 빨간 맛이 있는 베이지), 프란보아즈(산 이끼의 빨간색), 와인 레드 등으로 다양한 색상이다.

빨간 맛이 있는 와인 레드는 볼드 크레루라고 하고 젊은 여성들의 옷감에 사용되고 거무스레한 와인 레드는 볼드웁세라고 하여 여성, 남성에 사용된다. 이것이 파리 풍이다. 빨간 와인이라면 빨강 맛이 있는 것이 볼드이고, 검정 맛이 있는 것이 블루고뉴다. 이것은 유리잔에 넣어보면 알 수 있다. 그런데 패션 색상으로써 블루고뉴는 사용하지 않는다. 버간디라는 명칭도 없다. 그런데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은 코트로느(Cote du Rhone)이다. 유리잔에 투과해 보이는 빨강은 뛰어나고 풍요로운 향기가 강하고 농후한 맛이 있으나 로느라고 하는 명칭도 없으니 이것도 불만이다.

결혼 피로연에서는 샴페인이 사용된다. 유리잔 속에서 일고 있는 가는 거품과 황금색으로 끝없는 행복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색상을 샴파뉴(샴페인 칼라)라고 한다.

요즈음에는 웨딩 드레스에 순백 색상에서 다소 벗어나 이러한 색상을 즐기는 신부도 있다.

1) 색의 연구

어둠 속에는 빛이 없고 따라서 색도 없다. 색은 빛의 작용으로 물체의 표면에 부딪힌 빛의 반사작용이다. 색 또는 색체라고 하는 것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색 지각이다. 엄밀히 말하면 색 지각은 빛이 눈으로 들어오는 경우의 물리적 조건, 생리적 조건 등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이므로 색의 느낌은 일정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색이 눈에까지 도달하는 과정을 물리적으로 인식했다고 하며 색이 눈에 비치어 뇌신경까지 도달할 때를 생리적으로 보았다고 한다. 그리고 뇌신경에 감각되어 지각될 때까지를 심리적인 감각으로 보는 것이며 디자인에 의한 색채 조형을 생각한다면 미학적인 연구라 할 수 있다.

① 시 감각

빛이 안구의 망막에 닿으면 신경을 자극하게 되고 이것이 대뇌에 전달되어 시중추를 거쳐 시 감각을 일으킨다. 이때의 물리적, 생리적인 조건을 배제하고 외부 자극(빛)에 대한 직접적인 응답으로써의 감각을 시 감각이라고 한다.

② 시 지각

감광 세포에서 발생한 신경 자극이 대뇌에 전달되는 도중 또는 대뇌에 들어와서 신경자극과의 상호 작용 또는 과거의 경험이나 기억 등의 작용에 의해서 외부 자극에 대한 직접적인 응답으로써 왜곡된 시 감각을 일으키는데 이것을 시 지각이라고 한다.

③ 색 지각

우리들의 일상생활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색 지각을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i) 빛의 공간적 분포에 대한 지각 : 물체의 크기, 모양, 위치, 광택, 표면구

조, 질감 등 물리적인 모든 성질에 관한 지각을 말한다.

ii) 빛의 시간적 변화에 대한 지각 : 빛이 주기적 또는 순간적으로 변하는 상태에 따른 지각을 말한다.

iii) 빛의 명암에 대한 지각 : 밝고 어두운 정도에 따라서 색을 다르게 느끼는 지각을 말한다.

iv) 색에 대한 지각 : 분광 세포에 관한 지각으로 빛의 색, 물체 표면의 색, 투과색 등의 지각을 말하는데 명암 지각도 색 지각에 포함된다.

2) 색명

대상 개념을 알려면 이름의 개념부터 알아야 한다. 색명이란 색 이름에 의하여 색을 표시하는 표색의 일종이다. 그러나 전문적인 미학에서는 오스발트 표색계, 먼셀 표색계 등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러한 표색계가 정량적이고 정확성을 가졌다면 색명은 일상생활에 사용되는 감성적이며 부정확성을 가진 것이다. 그러나 색명은 언어를 통한 의사 전달면에 있어서 가장 편리하고 빠른 방법이며 이것을 관용 색명이라고 한다.

관용 색명은 오래 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습관상 사용하는 색의 고유 색명을 말하는 것으로 동물, 식물, 광물, 자연현상, 지명, 인명 등의 이름을 따서 붙인 것이다.

① 기원은 잘 모르지만 예로부터 사용해온 고유 색명 : 우리말로 된 것은 하양, 검정, 빨강, 노랑, 파랑, 보라 등이 있고 한문으로 된 것은 흑, 백, 적, 황, 녹, 청, 자 등이다.

② 동물의 이름에서 따온 색명 : 살색, 쥐색, 담황색(소의 살색), 새먼(salmon : 연어의 살빛색), 세피아(sepia : 오징어 먹색 또는 갈색), 피콕블루(peacock blue : 공작의 꼬리 색 또는 광택있는 청색) 등이다.

③ 식물의 이름에서 따온 색명 : 살구색, 봉숭아색, 팔색, 밤색, 풀색, 오렌지색, 장미색, 레몬색 등이다.

④ 광물의 이름에서 따온 색명 : 고동색, 금색, 은색, 호박색, 에머랄드 그린(밝은 초록빛) 등이 있다.

⑤ 지명 또는 임명에서 따온 색명 : 프러시안 블루(Prussian blue : 감청색), 하바나 브라운(havana brown : 하바나 여송 연색), 벤다이크 브라운(Vandyke brown : 진한 갈색), 보르도(Bordeaux : 포도주색) 등이다.

⑥ 자연 현상에서 따온 색명 : 하늘색, 땅색, 바다색, 무지개색, 눈색 등이다. 그리고 현대에 유행하는 우주복색이라는 것도 관용 색명에 속한다.

3) 색의 3속성

모든 색은 색상, 명도, 채도라고 하는 성질을 갖고 있는데 색의 3속성이라고 한다.

① 색상 : 빨강, 노랑, 파랑 등과 같이 그 색깔의 이름을 색상이라고 한다.

② 명도 : 색의 밝은 정도를 말하며 밝은 색은 명도가 높다고 하고 어두운 색은 명도가 낮다고 한다.

③ 채도 : 색깔의 순수한 정도, 색깔의 강약, 깊이, 선명한 정도, 명확한 정도를 말한다.

4) 색채의 실상과 용어

실상이라 함은 빛깔 이외에 색이 가지고 있는 뜻을 말한다.

① 난색과 한색 : 하늘, 물, 눈, 얼음 등을 연상시키며 차가움을 느끼게 하는 색깔을 한색이라 한다. 자연에 있는 태양, 불, 등을 연상시키며 따뜻함을 느끼게 하는 색깔을 난색이라고 한다. 그러나 보라색처럼 난색과 한색의 구

별이 잘 되지 않는 색깔도 있다.

② 진출색과 후퇴색 : 진출색은 튀어 나와 보이는 색으로 빨강, 오렌지, 노랑 등이 있으며 이런 색들은 자극적이고 공격적이다. 후퇴색은 청색, 녹색 등으로 가라앉아 보이고 차분하게 보이기도 한다.

③ 담색과 농색 : 어떤 색에다 흰색을 더하면 담색이 되고 반대로 흑색을 더하면 농색이 된다. 따라서 담색은 본래의 색보다 밝고 농색은 본래의 색보다 어둡다.

④ 유채색과 무채색 : 유채색이란 노랑, 파랑 등과 같은 명확한 색이며 이에 반하여 회색, 흰색, 검정색은 무채색이라 한다.

⑤ 흑색과 백색 : 흑, 백색은 태양 스펙트럼에 나타나지는 않으나 우리들은 구별할 수 있다. 그리고 흑, 백색에 들어가지 않고 채도가 없다.

⑥ 회색 : 흑색과 백색을 섞던가 보색끼리 섞으면 회색이 된다. 역시 회색도 색상이나 채도가 없고 다만 흰색에서 가까운 색에서 검은 색에 가까운 회색까지 명도상 여러 층의 단계가 있다.

⑦ 보색 : 두 가지 색을 섞으면 회색이 되는 경우를 보색이라고 한다. 즉 색상환에서 서로 반대측에 나타난 색을 말한다.

⑧ 유사색 : 색환표에서 근접한 위치에 있는 색이며 서로 공통된 비슷한 색을 가지고 있다.

⑨ 원색과 2차색 : 원색이라 함은 3원색을 말하며 1차색이 되고 원색과 원색을 합치면 2차 색이 된다. 또 2차색끼리 합치면 3차색이 된다. 세분하여 자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 원색 : 빨강, 노랑, 파랑 3가지가 있으며 1차색이라 한다.

㉡ 2차색 : 원색과 원색을 합한 중간색을 말하며 초록, 주황, 보라 등이 있다. 예로써 빨강+노랑=주황, 노랑+파랑=초록, 빨강+파랑=보라, 노랑+파랑+빨

강=검은 회색

㉔ 3차색 : 1차색+2차색=3차색이라고 하며, 2차색+3차색도 3차색이라 한다.

⑩ 혼색 : 색을 섞어서 다른 색을 나타나게 하며 본래의 색보다 어둡고 암회색이 될 때 감색 혼합이라고 한다. 직물인 경우 위사와 경사의 색상이 혼합될 때 혼합 색상이 나온다.

5) 색의 조화

자연은 언제나 조화되어 있다. 봄과 꽃, 여름과 바다, 가을과 산야, 겨울과 눈 어느 곳이나 따뜻함과 차가움이 조화되어 있고 색의 조화는 자연 속에서 배울 수 있다. 복장의 아름다움도 색의 조화로 더욱 성장시킬 수 있다.

① 색채 조화 : 그리스의 아리스토텔레스가 시작한 말이며 음악에서는 조화 여부가 쉽게 나타나지만 색에서는 다소 어렵고 복잡하다.

② 단색의 조화 : 농·담색 또는 명암이 다른 한 가지 색을 사용하여 배색하는 것을 말하며 단조로운 흠이 있으나 누구나 입을 수 있고 무난한 색이다. 복장의 색채 조화에 있어서 초보적인 방법이다.

③ 유사색의 조화 : 단색의 조화와 같이 안전하고 쉬운 방법이나 역시 단조로움이 흠이 되고 일반적으로 단색 조화보다 좀 더 변화 있는 배색이다. 또한 유사색은 색환표에서 인정되어 있는 색이며 가까울수록 배색하기 쉽다. 노랑, 황록, 녹색은 서로 관련이 있는 유사색이다.

④ 보색의 조화 : 빨강과 청록, 노랑과 자청 등, 서로가 대조적인 보색을 사용하여 배색하면 조화하기 어렵겠지만 성공하면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런 경우 색환표의 정반대 색보다 좀 떨어진 보색이 조화되는 수가 많다. 이것을 약보색이라 하고 그 이유는 사람의 눈이 완전하지 못한 까닭이라고 한다.

⑤ 다색의 조화 : 여러 색을 사용할 때는 같은 분량으로 쓰면 안되고 한 가지 색을 많이 쓰고 다른 색은 적게 써야 한다. 예를 들면 드레스에는 연한 색을 사용하고 블라우스나 액세서리 등 작은 부분에는 선명한 색을 쓰는 것이 좋은 배색이다. 그러나 너무 다양한 배색은 역효과를 가져온다.

⑥ 부조화 : 현대의 복잡한 감각은 오히려 소량의 부조화 색을 사용하여 효과있는 조화로 발전시켜 나간다. 어느 한색 가운데 약간의 난색을 사용하면 효과를 올릴 수 있는데 그것이 곧 부조화의 예이다.

⑦ 디자이너의 조화 : 어떤 색이던 색 그 자체로 좋고 나쁨을 정할 수는 없다. 사람에 따라서 단지 선호도가 다를 뿐이다. 그러므로 품위 있는 조화, 지적인 조화, 고상한 조화, 청순한 조화, 생생하고 젊은 조화, 귀엽고 세련된 조화 등 어느 것이나 센스의 훈련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조화는 사용하는 장소와 인간과의 조화까지 생각하여 발전시켜 나간다.

이 외에도 색의 중량감, 온도감, 화려한 감, 수수한 감, 흥분, 침정 등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여러 각도로 색채 조화를 볼 수 있다. 청각을 높이면 더욱 아름다운 음율을 청취할 수 있듯이 시각도 보는 눈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6) 색의 수반 감정

우리는 색의 감정을 정량적이 아니라 정성적인 면에서 응용하여야 한다. 인간은 색에 대하여 오랫동안 정확하게 기억하는 것과 쉽게 망각해 버리는 것이 있다. 일반적으로 적, 황계통의 난색이 청, 녹색 계통의 한색보다 정확하게 기억된다. 또한 색채는 인간의 감정을 자극하는 효과를 지니고 있고 색채에 따라서 받는 인상도 모두 다른 것이다. 이러한 색채를 의생활에 교묘하게 잘 이용하고 있는 것은 색채 조절 또는 색채 요법이라고 한다.

색채의 수반 감정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 보기로 한다.

- ① 온도감 : 적, 주황, 황록, 녹색, 청, 백 등의 순서로 따뜻한 감을 느낀다.
- ② 중량감 : 흑, 청, 적, 자, 주황, 녹색, 황, 백 등의 순서로 무거운 감을 느낀다.
- ③ 화려한 감 : 고채도와 고명도일수록 그리고 난색계열이면 더욱 화려한 감을 느낀다.
- ④ 수수한 감 : 저채도와 저명도일수록 그리고 한색계열이면 더욱 수수한 감을 느낀다.
- ⑤ 흥분 : 난색계의 고채도일수록 흥분감을 느낀다.
- ⑥ 침정 : 한색계의 저채도일수록 침정감을 느낀다.
- ⑦ 팽창과 수축감 : 난색계의 색깔은 팽창된 느낌이고 한색계의 색깔은 수축되어 보인다. 전자를 사용하면 가는 사람은 굵어 보이고 후자를 사용하면 뚱뚱한 사람은 수축되어 보이며 정열적으로 보인다.

7) 색의 연상과 상징

색채는 여러 가지 연상을 일으키고 상징적인 의미와 내용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수반 감정은 색채가 인간에게 미치는 기본적인 효과이기 때문에 개인의 차이가 별로 없지만 이러한 연상이나 상징은 국가와 민족, 남녀노소에 따라 개인의 차가 심하다. 또한 연상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연상과 추상적인 연상이 있는데 구체적인 연상은 국가와 민족, 남녀노소를 초월한 모든 인류의 공통된 관점에서 보는 색채의 연상이고 추상적인 연상은 민족이나 남녀노소에 따라서 달리 연상되는 것이다. 색의 연상 및 상징은 다음과 같다.

색의 연상과 상징

색상	상징	구체적인 연상	추상적인 연상
----	----	---------	---------

적색	정열	불, 피, 태양, 열	열렬, 위험, 혁명, 비속
황색	희망	빛, 금, 바나나, 레몬	광명, 명량, 대담, 쾌활, 천박, 경박
녹색	평화	풀, 잎, 숲, 열육소	안식, 안정, 평화, 이상, 소박, 여름
청록색	서늘함	바다, 하늘, 물	인애, 우울, 냉담, 고독, 박정
파랑색	승고	천사, 파랑새	심원, 천사의 사랑, 유구, 영원, 신비
자색	창조	민들레, 포도	우아, 예술, 위엄, 실망, 신앙
백색	순수	눈, 구름, 사탕, 백의	청결, 소박, 순결, 신성, 정직
흑색	허무	밤, 먹, 숯, 흑장미	절망, 정치, 침묵,, 죄, 죽음, 불안
회색	겸손	흐름, 재, 쥐	우울, 점잖음, 무기력